벤처창업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64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4 No.4 pp.133-142

자영업자의 창업역량지표와 창업성과의 관계

김대엽 (청운대학교 미래창업학과 교수)*
안승권 (군산대학교 행정경제학과 교수)**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예비창업가의 성공가능성을 사전 평가하는 창업역량지표의 예측력을 실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자영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 의류, 미용, 커피 업종을 대상으로 단일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총 1,600개의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한 검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실증을 통해 창업역량지표가 창업성과와 관계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실증할 수 있었다. 특히 직업만족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재무적성과의 세부 지표에서는 일부 유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일 지표로 구성된 창업역량지표 중에서 항목별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창업가의 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창업역량지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확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측정된 역량지표 중에서 개인적인 특성이나 창업지식과 창업실행 역량, 외부환경 항목은 직업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용, 음식을 비롯한 자영업종은 자신만의 노하우 또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것보다 실행역량과 창업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형 창업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자영업자, 창업역량지표, 창업성과

Ⅰ. 서론

한국 직장인은 평균 49.1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준비 한다(노승욱 외, 2018).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하는 자영업자는 2018년 기준 5,638천명으로 전년대비 44천명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체취업자 중에 21.0%를 차지하고 있다. 고도 산업성장기에서 저성장시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자영업에 대한 끊임없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다(이종현, 2019).

2002년 6,212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과당경쟁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17년 25.4%)은 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한다(통계청, 2016).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에도 예비창업가의 성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들의 창업역량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전점검도구가 창업역량자가진단키트[1]이다. 자가 설문으로 만들어지는 창업역량지표는 자영업자 등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 환경은 우호적인지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예비창업가들이 사전에 이와 같은 역량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역량지표와 창업 성공이 관련되어 있다는 실증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창업역량지표의 예측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시작하였으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일시점에서 자가 설문을 통해 자신의 창업역량지표를 진단하도록 하고, 현재의 창업성과를 동시에 설문하여 봄으로써 창업역량평가지표와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하고 평가지표의 예측가능성을 확인 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자영업

김수진(2018)은 우리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등장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 주저자, 청운대학교 미래창업학과 조교수, isoa@chungwoon.ac.kr
** 공동저자,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겸임교수, ask@kunsan.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jaypark123@empas.com
· 투고일: 2019-05-09 · 수정일: 2019-07-10 · 게재확정일: 2019-08-05
1) 창업진흥원(https://www.k-startup.go.kr/biz/mdg/sdm/mdgSdmMySelfdiagList.do). 회원가입 후 창업지원서비스에서 실제로 자신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도·소매업(23.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21.5%), 숙박 및 음식업(14.6%)이 있다. 이들 업종을 모두 합치면 자영업 업종의 59.7%에 해당된다. 많은 정책적인 대상도 퇴직자를 비롯한 생계형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 창업가의 업종 선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진로 및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창업가의 특성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도 상기 산업분포를 기준으로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신성과 기술성이 강조되는 미용업은 시장 변화와 유행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타 업종에 비해 경영자의 학력, 연령, 경험 등 배경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윤명순·한필구, 2010). 경영성과에 대해 조성태·김윤(2007)은 기업가 정신, 경영관리, 점포요인, 자금력 등이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기업가 정신 영역은 창의성, 혁신성 그리고 가치창출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였으며, 가치창출 속성이 관련 있다고 분석되었다. 경영자 특성의 중요 요인으로 교육 욕구, 위험 감수 성향, 리더십, 성취욕으로 정의한 후 경영성과와 재무성과·만족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욕구, 위험감수성향, 리더십이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만족성과·경영성과에서는 교육욕구, 위험감수성향, 성취욕구가 유의적이라고 실증하였다(한지영, 2012).

음식업을 하는 경영자의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식업 창업가들이 창업하게 되는 원인과, 제품·서비스수준과 경영 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이성호·박노국(2012)이 있으며, 백진경 외(2012)는 비전 지향성, 교육욕구, 성취욕구, 도전성, 적극성을 소규모 외식업체 경영자의 자질로 분류 해 놓고 재무성과・만족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결과 재무성과에는 비전 지향성과 도전성이 유의적이며, 만족성과에는 도전성이, 경영성과에는 비전 지향성과 도전성이 유의적이라고 하였다. 김상호·박진환(2010)은 창업가가 가지는 진취적인 성향은 경영 성과에 유의적 관련이 있으며, 조준희 외(2013) 는 창업가가 가지는 특성 중 성취욕구, 자아의식욕구가 경영성과에 유의적이라고 분석하였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지삼현(2007)은 창업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경영관리 요인을 조사하였다. 의류업자 개인적 특성으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모호성, 통제위치, 관리적 능력, 기업가적 능력, 기술적 · 기능적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이런 개인적 특성 중 위험감수성, 통제 위치, 관리적 능력, 기업가적 능력, 기술적 · 기능적 능력이 성공요인으로 실증되었다.

동려민 외(2014)는 커피전문점을 찾는 고객들이 인지하는 서비스 체험이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감정반응, 만족, 충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커피전문점 서비스 체험 요인 중에서 감성체험이 감정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고객이 커피전문점을 휴식 공간으로 인지할 때 감정반응이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감정반응은 고객만족을, 만족은 고객의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변광인 외(2014)는 매출 상위 4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감정반응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였다.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성과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비 창업가의 창업 역량지표로 단순화하여 평가하는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김진수 외, 2013). 정책당국 입장에서 동일한 잣대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반적인 유용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자영업자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특성, 창업환경, 그리고 지원제도의 연결선상에서 묶어서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김남표·권영주, 2018),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평가 모형의 개발이 연구되고 제안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창업평가 모형과 창업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실증 검증은 드물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모형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이 연구되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실행 환경과 정책적인 요인 모두에서 자영업자의 성과와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2. 창업평가지표

창업환경은 다양한 위험과 변수에 노출되며, 창업가의 신중한 의사결정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창업가의 활동, 과정과 같은 창업가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한다. Boyatzis(1982)가 특정 역할을 수행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힘을 역량으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창업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다양한 역량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역량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박동건·최대정, 2003; 김진수 외 2010; 정경희·최대수, 2018). 안태욱 외(2019)는 창업가 역량특성이 창업지원제도를 매개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통해 환경적인 지원도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회형 창업에 해당하는 이노비즈를 비롯한 기술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업의 평가지표 중에서 높게 평가된 지표는 기술사업화 능력 부문의 기술의 제품화 능력과 기술혁신 능력이며, 중요도가 낮다고 평가된 문항은 기술적 성과(예측)과 기술혁신 성과, 기술혁신경영 능력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섭, 2017).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의 대항목과 8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은 경영주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으로 구분하여 총 3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김성태·홍재범, 2015).

김진수 외(2013)는 Carland et. al.(1989)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

망창업가 발굴을 위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그 모형에는 개인적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가 역량, 창업실행역량, 창업가 환경, 창업외부환경을 포함시키고 있다.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박동건·최대정(2003)은 설문을 통해 창업가 특성 및 기질과 창업에 대한 적성을 이해하기 위해 창업에 적합한 역량을 규명하고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시도를 하였다.

< 표 1> 창업평가지표 관련 연구 요약 >

저자	제목	연구방법	주요 내용
정경희·성창수 (2018)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 유의성 검증에 관한 연구: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973개 로지스틱 회귀분석	창업기업 선정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하여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의 유의성 확인
정경희·최대수 (2018)	균형성과표기반 창업기업 선정 평가지표 개발	문헌조사 델파이 기법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선별을 위한 선정평가지표 개발 목적으로 함. 창업가 역량 〉 시장경쟁력 〉 제품화 역량 〉 제품 차별성 순으로 관련이 있다.
이정섭 (201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및 제도 개편 연구	설문 전문가 심층 인터뷰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편 방향 설정
김성태·홍재범 (2015)	고성장기업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모형(KTRS)기술 평가지표 설명변수로 적용	고성장기업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
김진수 외 (2013)	유망창업자 발굴을 위한 선정평가모델 개발	문헌연구	국내 창업가선정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심층적 분석과 외국의 선정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적합한 창업가 선정 프로세스를 개발함
박동건·최대정 (2003)	창업가의 역량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도 분석	역량 설문지 1,002명	창업가 특성 및 기질과 창업적성에 대한 이해 도모. 창업에 적합한 역량 요인을 찾고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

단일화된 창업역량 평가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수행도구임에는 분명하다. <표 1>에서 요약 정리한 연구 외에도 많은 연구가 정책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가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아울러, 창업자들이 창업 전에 자신의 창업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시대에 맞도록 개발된 평가도구도 끊임없이 개량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 맞도록, 창업진흥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역량진단 지표와 유사한 지표를 지니고 있는 김진수 외(2010)의 창업평가지표를 검증하기로 한다.

2.3 창업성과

창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Tsai, 1991). Chandler & Hanks(1994)는 재무적 관점에서 매출액 증가액 투자수익률, 수익성,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을 제시한다.

Dess & Robinson(1984)의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성과측정이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재무적지표로 ROE, ROS, ROI등을 사용하고 비재무적 지표로 제품혁신, 성장률, 시장점유율을 사용하며, 주관적 지표로 사회적 책임, 근로생활의 질, 만족도 등을 사용하는 연구도 있었다는 점에서 창업성과를 특정해서 측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자영업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고객만족도를 핵심변수로 간주하기도 한다(한봉수 외, 2010). 외식산업과 같이 고객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환경에서는 가치추구, 서비스 추구, 새로운 음식 추구, 건강추구 등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Yuksel & Yuksel, 2002).

Linda et al. (2010)이 연구한 자아실현, 노력, 주변인식, 경제적 성공, 성과, 보상, 역할, 혁신, 독립도 창업성과로 구분되기도 한다. 항상 고려해야 할 부분은 창업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되거나, 성공과 실패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성공, 혁신, 역할, 독립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김남기 외, 2014). 비교적 짧은 상황에서 창업자의 주관적인 판단항목인 자아실현과 주변인식이 실증 분석에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성과와 자기 측정항목인 만족도를 사용한다.

2.4 연구모형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 역량과 창업성과 간에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화·하규수(2015)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정책당국의 창업지원과 수혜를 받았을 때 창업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단일 측정도구로 개발된 창업평가지표가 창업성과와 관련되는지를 실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단일지표로 측정되는 창업평가지표의 세부 항목이 개별적으로 관련되는 지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주제: 창업역량지표는 자영업자의 창업성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9 문항), 기업가정신(9 문항), 창업지식역량(9 문항), 창업실행역량(10 문항), 창업자환경(6 문항), 창업외부환경(7 문항)을 포함한 6개 세부 항목(50 문항)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표2>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개인역량 특성은 다양한 상황 또는 정보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 중에서 창업의지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구성하였고, 성취욕구, 대인이해력, 고객지향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창업가정신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창업지식역량은 사회 활동에 활용되는 일반상식과 차별되는 창업과 지속 경영에 필요한 특정 지식으로 정의하여 창업 기초지식과 전문지식 및 창업정보 활용 지식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창업실행역량은 일반 사회 활동에서 취득되는 보편적인 경험과 구별되는 실제적인 창업 실행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경험 및 보유능력이며, 특정 분야의 경험과 자격 및 창업을 위한 사전 활동정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창업팀원, 창업교육, 시장조사 경험을 측정한다. 창업자 환경요인은 기존창업역량요인의 차별화요인으로 창업자에 밀착된 환경요인을 측정한다. 창업외부 환경요인은 시니어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요인으로 창업자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정치, 사회문화 및 기술주기 환경요인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적성과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매출액 증가율, 투자수익률 시장점유율로 선정하여 총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직업만족도는 3개의 설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신의 만족도, 가족의 만족도, 그리고 지인들의 만족도를 동일 시점에서 측정되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은 1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로 5점은 '매우 중요함'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Ⅲ. 실증분석

3.1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미용실, 카페, 일반음식점,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별로 나누어 2014년 03월부터 05월까지 서울경기, 충청, 호남, 영남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전부 배포된 설문지는 업종별로 각각 100부씩이며, 4개 지역을 합쳐 총 1,600부이다. 설문지는 연구자의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을 통해 배포 및 회수하도록 하였고, 통계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21명이 응답한 설문을 수집할 수 있었다. 업종이 기타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하고 실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891개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창업역량지표와 창업성과와의 관련성을 검정하였다.

<표 2> 창업역량 지표

구분	문 항
1. 개인적 특성	1. 나는 원하는 일은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달성하려고 한다
	2. 나는 오랜 시간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3.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힐수록 혼신의 힘을 다해 해결하고자 한다
	4.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5. 나는 상대방의 태도, 관심, 욕구를 잘 파악 할 수 있다
	6. 나는 원만한 대인관계가 사업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7.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편이다
	8. 나는 개인적 욕구보다 시장 수요중심의 사업 아이템을 찾을 것이다
	9. 나는 고객의 욕구 이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기업가 정신	1. 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
	2.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3. 나는 안정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편이다
	4. 나는 위험이 따르더라도 하고 싶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편이다
	5.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기꺼이 외부자금을 조달해 투자할 것이다
	6. 나는 결과가 불확실해도 미루기보다는 기꺼이 의사결정을 하는 편이다
	7. 모든 일에는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다
	8.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도 끈기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 편이다
	9.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 한다
3. 창업 지식 역량	1. 나는 창업을 위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2. 나는 사업계획서의 핵심 구성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다
	3. 창업관련 서적이나 온라인사이트 등을 통해 기본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4. 나는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나는 경력 분야 또는 특정사업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6. 나에게 적합한 창업아이템의 조사 분석방법을 알고 있다
	7. 나는 창업관련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모니터링하거나 숙지하고 있다
	8. 나는 특정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창업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9. 스스로 정보 수집과 관리에 필요한 PC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이 충분하다
4. 창업 실행 역량	1. 나는 같은 연령대의 타인에 비해 우수한 체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2. 나는 창업할 분야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3. 나는 창업 시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조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4. 창업 시 필요한 핵심 인력을 알거나 확보하고 있다
	5. 나의 관심 분야(아이템)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특허 등을 확보하고 있다
	6. 나는 관심 있는 창업분야(아이템)와 관련 있는 업무경험이 충분하다
	7. 나는 창업을 위해 최근 사업설명회나 창업박람회 등에 3번 이상 참여해 본 적이 있다
	8. 나는 실패와 성공을 불문하고 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창업경험이 있다
	9. 나는 최근 창업 준비를 위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10. 나는 관심분야(아이템)에 대해 일주일 이상 시장조사를 한 경험이 있다
5.	1. 내가 창업을 결정한다면 가족은 적극 지지할 것이다

창업자 환경	2 친구나 직장 동료가 사업을 생각해보라고 적극 권하는 편이다
	3. 사업 지속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도 부담되는 요인이 없다
	4.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나와 가족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5. 창업하더라도 현재 주거상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6. 창업 후 사업소득에 상관없이 가계유지와 노후 자금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다
6. 창업 외부 환경	1. 현재 정부는 내 관심분야(아이템)을 주요 정책 및 제도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내 관심 분야(아이템)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성장 확대되고 있다
	3. 내 관심 분야(아이템)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성장 확대되고 있다
	4. 내 관심 분야(아이템)와 직접 관련된 뉴스나 커뮤니티가 늘어나고 있다
	5. 내 관심 분야(아이템)는 대중적 관심과 수요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6 내 관심 분야(아이템)는 가까운 미래산업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7. 내 관심 분야(아이템)는 융복합 첨단기술 트렌드에 포함된다

<표 3> 창업성과

구분	나의 회사는 아래의 재무적 성과들이 동종업계 내 업력이 비슷한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이다
재무적 성과	1. 매출액 증가율
	2. 투지수익률
	3. 시장 점유율
직업적 만족도	1. 스스로 가지는 나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2. 나의 가족이 가지는 나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3. 나의 주변 지인들이 가지는 나의 직업에 대한 부러움

3.2 분석결과

3.2.1. 표본의 특징

설문대상자는 <표 4>와 같이 남자 490(55.0%), 여자 401명(45.0%)이며, 20~29세 90명(10.1%), 30~39세 458명(51.4%), 40~49세, 254명(28.5%), 50~59세 78명(8.8%), 60세 이상 11명(1.2%)이다. 학력은 고졸 288명(32.3%), 전문대졸 168명(18.9%), 대졸 419명(47.0%), 석사 15명(1.7%), 기타 1명(0.1%)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미용업 225명(25.3%), 음식점 241명(27.0%), 의류업 224명(25.1%), 카페 201명(22.6%)으로 4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표 4. 표본의 특징 >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490	55.0
	여자	401	45.0
연령	20~29세	90	10.1
	30~39세	468	51.4
	40~49세	254	28.5
	50~59세	78	8.8
	60세 이상	11	1.2
최종학력	고졸	2881	32.3
	전문대졸	168	18.9
	대졸	419	47.0
	석사	15	1.7
	기타	1	0.1
	무응답	14	1.5
업종	미용업	225	25.3
	음식점	241	27.0
	의류업	224	25.1
	카페	201	22.6
거주지역	서울	247	27.7
	충청	204	22.9
	호남	221	24.8
	영남	218	24.5
	결측	1	0.1
합계		891	100.0

3.2.2 자영업의 단일성 분석

설문 대상자인 자영업자가 단일 도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창업역량지표, 재무적 성과 그리고 만족도에서 업종별 분산을 확인하였다. ANOVA분석 결과인 <표 5>와 같이 창업역량지표에서 Levene 등분산 검정 통계량 1.997, 유의확률 0.113($p>0.05$)로 나왔다. 이는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성과의 Levene 등분산 검정 통계량은 25.053, 유의확률 0.000($p>0.05$)으로 나타나 재무성과는 다른 모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업종별로 다른 성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직업만족도의 Levene 통계량은 23.412이며 유의확률 0.000($p>0.05$)로 나타나 재무성과와 마찬가지로 모집단의 분산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창업역량지표에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단일 집단이지만, 종속변수인 재무성과와 직업만족도에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창업역량지표에 있어서는 단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 분산의 동질성 검정 >

구분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확률
창업역량_지표	1.997	3	887	.113
재무성과	25.053	3	887	.000
직업만족도	23.412	3	887	.000

3.2.3 창업역량지표와 창업성과와의 관계

창업역량지표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제시된 창업역량지표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항목별로 합산과 함께 전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김진수 외, 2010). 창업역량지표는 전체적인 점수로 계량화하여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산출된 점수와 성과 간에는 높은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표 6> 재무적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재무적성과		
	b	*p*	β
창업역량	.005	***	.125
직업만족	.044	***	.107
F 값	15.336		
R2	.033		
수정 R2	.031		
durbin-Watson	1.752		

창업역량지표와 직업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사용되고, 종속변수로 재무적성과를 사용한 <표 6>를 보면, R^2가 0.033으로 설명력이 부족함을 할 수 있으나, 수정된 R^2과 차이가 없어 모형 자체는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F값은 15.336으로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즉 창업역량지표는 재무적 성과와 유의적임이 실증되었다.

<표 7> 전체(5년 미만 창업자)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		
	b	*p*	β
창업역량	.013	***	.255
직업만족	.032	.058	.099
F 값	17.436		
R2	.088		
수정 R2	.083		
durbin-Watson	1.628		

본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은 창업자의 역량 지표이며, 특히 5년 미만의 창업가임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강선성을 위해 사업 5년 미만의 창업역량 지표와 재무적 성과가 관련 있는지를 실증해 보았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5년 미만의 창업자(355명)의 창업역량과 직업만족도가 재무적 성과와 관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2로 제시되는 모형의 설명력은 .088(수정 R^2=.083)으로 안정적이며 유의적(F=17.436)이지만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남는다.

창업역량지표가 재무적 성과에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면, 직업만족도와도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할 필요가 있으며,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업역량지표가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창업역량이 직업만족과 유의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영업 활동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의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재무적 성과와 직업만족에 대한 창업역량지표의 관련성은 모두 유의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창업역량지표는 자영업자의 성과와 직업적 성취도에 있어 사전적인 측정 역할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실증하였다.

<표 8> 직업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직업만족		
	b	*p*	β
창업역량	.023	***	.219
재무성과	.250	***	.103
F 값	30.955		
R2	.065		
수정 R2	.063		
durbin-Watson	2.099		

창업역량이 재무적 성과와 직업 만족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실증결과는 전체 점수가 일정하게 예측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가설을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기 위해 창업역량지표의 세부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이 관련이 되는 가를 실증해 보았다.

<표 9> 직업만족에 대한 회귀분석(5년 미만) 결과

종속변수	직업만족		
	b	*p*	β
창업역량	.023	***	.227
재무성과	.215	.049	.105
F 값	14.511		
R2	.075		
수정 R2	.070		
durbin-Watson	1.978		
설문대상	359		

세부 항목은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지식역량, 창업실행역량, 창업자 환경 그리고 창업외부환경을 포함한 6개 항목으로 구분되었으며, 개별 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한 지표를 독립변수로 하고 재무적 성과와 직업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각각 회귀분석하였다.

<표 10> 세부 항목(재무적 성과) 회귀분석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		
	b	*p*	β
직업만족	.027	.062	.065
개인적 특성	-.001	.387	-.029
기업가정신	.000	.967	-.001
창업지식역량	-.001	.394	-.030
창업실행역량	.005	***	.162
창업자 환경	.001	.299	.036
창업외부환경	.007	***	.263
F 값	14.983		
R2	.108		
수정 R2	.101		
durbin-Watson	1.847		

<표 10>에 보는 바와 같이, 분산분석에서 제시되는 F 값은 14.983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나타고 있으며 R^2은 .10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모형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창업실행역량과 창업외부환경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지식역량 그리고 창업자환경은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된다 특히, 개인적 특성과 창업지식역량은 역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도전적인 정신이 많이 요구되지 않으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실행을 위한 자신만의 노력이 중요시 되는 측면과 함께, 치열한 자체 경쟁 속에서 성과를 만드는 부분이 강조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직업만족과의 관련성을 통해 확인 해 볼 수 있다.

<표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직업만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개인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역의 관계) 창업자 실행역량 창업자 환경 그리고 외부환경 모두에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표준화된 베타를 보았을 때 외부환경이 높은 영향력(32.2%)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영향력(26.3%)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창업실행역량인 우수한 체력과 열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격증 등 준비, 업무경험과 충분한 교육과 같은 실행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사회문화적 환경 그리고 대중적 관심과 같은 창업외부환경이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심리적인 측면이나 지식 그리고 창업자의 주변 환경은 성과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표 11> 세부 항목(직업만족) 회귀분석

구분	전체(891개)			5년 미만(359개)		
종속변수	직업만족			직업만족		
	b	*p*	*β*	*b*	*p*	*β*
재무적성과	.146	.062	.061	.153	.157	.075
개인적 특성	.006	***	.086	.016	***	.201
기업가정신	-.002	.238	-.039	-.004	.044	-.102
창업지식역량	-.001	.598	-.018	.002	.443	.040
창업실행역량	.005	.046	.069	-.010	.020	-.129
창업자 환경	.016	***	.334	.013	***	.281
창업외부환경	.009	***	.137	.020	***	.322
F 값	25.250			14.442		
R2	.167			.224		
수정 R2	.160			.208		
durbin-Watson	2.043			1.990		

전체적으로 본다면, 재무적 성과와 직업만족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 특성이나 창업자의 실행역량 그리고 창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와 대외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회형 창업과 다른 자영업만의 평가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도전적이거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역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모습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Ⅳ. 결론

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창업역량을 정확히 진단받을 수 있다면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같이 생계형 창업의 경우에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되고 제안된 창업역량평가 도구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효과적으로 개량되어 지고 결과적으로 예측력이 높아진다면 도구의 사용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점포들 중에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 의류, 미용, 커피 업종을 대상으로 창업 전에 실시되는 창업역량지표가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업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단일 시점에서 측정하였으며, 역량평가 지표의 유용성을 자영업종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한 역량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량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역량지표를 자영업종에 적용하여 보았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역량지표가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창업선도대학 선정사업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의 성과 측정가능성을 실증한 2015년 연구에서 기회형 창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정경희·성창수(2018)의 연구가 기술중심의 기회형 창업에 대한 검증이라면, 본 연구는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사전적으로 창업 역량을 측정하는 이유는 사업의 성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준비된 창업자를 만들기 위함이다. 사전 점검을 통해 창업 성과를 높이고 자 하는 정책 당국에서는 창업역량지표와 같은 계량적인 점검도구의 사용을 가속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역량지표 중에서 개인적인 특성이나 창업가 항목 그리고 창업지식과 외부환경 항목에서는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창업 실행항목이 성과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계량적인 측면인 직업 만족도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창업실행 등에서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고용창출을 선도할 창업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자영업 업종이 창업 초기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보다 자세한 자료의 확충과 창업전문가의 사전적인 자문이 업종별로 반영된다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시계열적 추적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 조사의 한계와 패널 구성 미흡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료의 한계로 단일 시점에서 측정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창업역량 지표가 좋음에도 실패한 경우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창업의 실패경험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REFERENCE

김남기·배병렬·이광행·한동희(2014). 창업의도와 성장의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지원사업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643-666.

김남표·권영주(2018). 소상공인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책개발연구*, 18(1), 131-157.

김상호·박진환(2010). 외식산업 창업 성공 요인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16(2), 215-231.

김성태·홍재범(2015). 고성장기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23(3), 373-396.

김수진(2018) 우리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자영업 동향 분석과 시사점, *Issue & Insight*, 13.

김진수·성창수·홍성호·이기현·이우진(2010). *시니어 신규창업업종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소상공인진흥원.

김진수·이창영·이우진·김용태(2013). *유망창업자 발굴을 위한 선정평가모델 개발*, 서울:창업진흥원.

노승욱·강승태·나건웅(2018). '사상 최악' 대한민국 자영업: 폐업률 88%…자영업자 십중팔구 망해 재취업·연금 '하늘의 별'… 빚만 산더미, 매*경이코노미*, 1969호. retrieved April 1, 2019 from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8/487660/

동려민·유창리·이정자(2014). 커피전문점 소비자의 서비스 체험, 감정반응, 만족 및 충성도간의 관계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3(3), 165-181.

박동건·최대정(2003). 창업자의 역량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2), 61-91.

변광인·이정은·김기진(2014). 사회적 환경을 포함한 서비스 스케이프가 고객의 감정반응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 중심가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3(1), 101-123.

백진경·손춘영·박대섭·홍완수(2012). 소규모 외식업체 경영자의 자질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5(4), 1039-1046.

안태욱·한동희·강태원(2019). 창업가 역량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제도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73-83.

윤명순·한필구(2010). 미용서비스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6(2), 384-395.

이상화·하규수(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플로우(Flow)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37-150.

이성호·박노국(2012). 음식업 창업자들의 경영성과 요인 실증분석, *벤처창업연구*, 7(3), 151-159.

이정섭(201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및 제도개편 방안 연구*,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이종현(2019).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변천 과정과 산업 정책의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동향과 전망*, 229-266.

정경희·성창수(2018).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의 판별 유효성, *벤처창업연구*, 13(4), 13-22.

정경희·최대수(2018). 균형성과표(BSC) 기반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 개발, *벤처창업연구*, 13(6), 49-62.

조성태·김윤(2007). 미용업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3(1), 310-312.

조준희·김찬중·전병주(2013). 외식업 경영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지삼현(2007). *소상공인 성공창업 모델링 수립 연구: 대전광역시의 의류업 사례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통계청(2016). 자영업 현황분석, retrieved April 1, 2019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5/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58300&ord=4.

한봉수·이려정·김병용 (2010). 제과제빵 학원의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9(6), 195-212.

한지영(2012). 소상공인 피부미용샵의 경영자 특성에 따른 성과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13(4), 149-169.

Ahn, T. U., Han, D, H., & Kang, T. W.(2019). The Effects of Entrepreneur Competence Characteristics on Start-Up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73-83.

Boyatzis, R. E.(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Byun, G. I., Lee, J. E, & Kim, K. J.(2014). Impact of Servicescape Including Social Environment on Emotion Responses and Behavioral Intention of Customers: Focusing on Coffee Shops in Daegu City-Center,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23(1), 101-123.

Carland, J. W., Carland, A. C., & Aby, C. D.(1989). An assessment of the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planning in small busines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7(4), 23-34.

Chandler, G. N., & Hanks, S. H.(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331-349.

Chi, S. H.(2007). *A Study On Sucess entrepreneurial modeling of Small Business: Focus on Apparel of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Master's Thesis, Hanbat University.

Cho, S. T., & Kim, Y.(2007). A Study on Success Factors of Beauty-salon Business Found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3(1), 310-312.

Cho, J. H., Kim, C. J., & Chun, B. J.(203). *A Study on Performance Factors on the Food Service,*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Preceding.

Chung, K. H., & Sung, C. S.(2018). A Study on the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of Assessment Items for Selecting Start-ups: Focusing on Project Fostering Start-ups through Leading Universit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13-22.

Chung, K. H., & Choi, D. S.(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Assessment Index for Selecting Start-ups on BSC,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6), 49-62.

Dess, G. G., & Robinson Jr, R. B.(1984). Measur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Absence of Objective Measures: the Case of the Privately-Held Firm and Conglomerate Business Uni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3), 265-273.

Dong, R. M., You, C. L., & Lee, J. J.(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Coffee Shop Consumers' Service Experience, Emotional Response, Satisfaction and Loyalty,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23(3), 165-181.

Han, J. Y.(2012).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 Owners' Skin Care Shop,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13(4), 149-169.

Han, B.S., Lee. R.J., & Kim, B.Y.(2010). A Study on Baking Institute Academy Selection Attributes and Satisfaction, *Korea Academic Society of Hotel Administration*, 19(6), 195-212.

Kim, J. S., Shung, C. S., Hong, S. H., Lee, K. H., & Lee, W. J.(2010).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and Education Programs for Senior New Entrepreneurs,* Seoul: Korea small & Micro Business Development Agency.

Kim, J. S., Lee, C, Y., Lee, W. J., & Kim, Y. T.(2013). *Development of Selection Model for Prospective Entrepreneurs,* Seoul: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im, N. K,, Bae, B. Y., Lee, K. H., & Han, D. H.(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Growth Intention on Start-up Firm Outcom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atisfaction of SME Support Program,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conference preceding*, 643-666.

Kim, N. P., & Kwon, Y. J.(2018).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Start-up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18(1), 131-157.

Kim, S. H., & Park, J. H.(2010). The Effects of Success Factors for Starting Busines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on Management Performance,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6(2), 215-231.

Kim, S. J.(2018), Domestic Self Employment Trend Analysis and Implications Using Woori Card Big Data, I*ssue & Insight*, 13.

Kim, S. T., & Hong, J. B.(2015). A Study on Determinants of High-growth Firms: Focusing on Technology Appraisal Indicators,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3(3), 373-396.

Lee, J. S.(2018). *A Study on the Revision of Inno-Biz's System and Evaluation Indicators,* Seoul: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Lee, S. H., & Park, N. K.(2012). An empirical analysis of business performance factors of restaurant business start-u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3), 151-159.

Lee, S. W., & Ha, K. S.(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37-150.

Linda, F. E., Candida, G. B., Tatiana S. M., & Patricia G. G.(2010). Start-up Motivations and Growth Intentions of Minority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8(2), 174-196.

Noh, S. W., Kang, S. T., & Nah, K. W.(2018). The worst ever in Korea 'self-employment-close rate 88%… Indeed, self-employed, unemployed, reemployed, pension 'star of the sky'…A lot of debt.. *Maekyung Economy*, No. 1969. retrieved April 1, 2019 from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8/487660/

Park, D. G., & Choi, D. J.(2003). Development of Entrepreneur`s Competency Assessment tools and Analysis of Their validity,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2), 61-91.

Paik, J. K., Son, C. Y. Park, D. S., & Hong, W. S.(2012). The Effects of the Restaurateur Quality and Skill on Performance in Small Business,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25(4), 1039-1046.

SMBA(2016). *Self Employment Status Analysis,* retrieved April 1, 2019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5/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58300&ord=4

Yi, J. H.(2019).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self-employment policy since 1997?,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229-266.

Yoon, M. S., & Han, P. K.(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Cosmetic Service Small Traders and Enterpriser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Management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6(2), 384-395.

Yuksel, A., & Yuksel, F.(2002). Measurement of tourist satisfaction with restaurant service: A segment-based approach,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9(1), 52-68.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e Index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in Small Business

Kim, Daeyop*
Ahn, Seungkwon**
Park Jaehw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whether the entrepreneurial capacity indicator utilized by the pre - founder can predict the start-up's performances in advance. The questionnaire for this study was measured at a single point in food, clothing, cosmetics, and coffee industrie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50% of self-employment in korean economy. A total of 1,6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retrieved. And the final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ntrepreneurial capability index was related to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s. In particular, job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but some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in the detailed indicators of financial aspect, and the significance was confirmed in terms of the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among the entrepreneurial competency indicators composed of single indicators. From the policy point of view, it was suggested that entrepreneurial capability index can be a good tool to increase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of the entrepreneur.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ial knowledge, entrepreneurial execution capacity, and external environment items were close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among measured competency indicators. Self-employed businesses, such as cosmetics and food, ware based on their own know-how and technology, and therefore, they were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ir ability to run and business environment than others.

KeyWords: Small Business, Entrepreneurial Competence Index, Entrepreneurial Performance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Chungwoon University, isoa@chungwoon.ac.kr
** Co-Author, Adjunct Professor, Kunsan University, ask@kunsan.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jaypark123@empas.com